월요광장

다시 '광주정신'에 대하여

김형중
조선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인문도시광주위원회 위원장

얼마 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청원에 서명했다. 그간 써온 글, 강연에서 뱉은 말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의문은 남는다. 도대체 '5·18정신'이란 무엇일까? 과연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해 줄 이가 있기나 할까? 정신이라는 말은 참 모호해서 내가 언젠가부터 5·18을 호명할 때 대체로 '항쟁'이나 '민주화운동' 같은 성격 규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 '광주정신'이나 '오월정신' 같은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다. 대신 나는 그저 숫자만 표기하는 '5·18'이나 '절대공동체' 혹은 '무한텍스트'란 말을 선호하는데, 그런 이면에는 '5·18정신'이 특정한 시기 특정한 가치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5·18정신'이 영원하기를, 그러나 다시 그 '5·18정신'이 문제다.

1990년대 후반, 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이들이 '5·18정신'을 '민주·평화·인권'의 3대 가치로 요약하곤 했다. 5·18기념재단 창립 선언문이나 설립 취지문에도 명시적으로는 이 3대 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몇몇 연구자들에게 물어도 정확한 답을 얻지는 못한 형편이니, 나로서는 그 기원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제 저 3대 가치에 대해 의문을 던질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편이다. 그간 '민주·인권·평화'라는 3대 가치가 발휘해 온 위력과 역할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어떤 강력한 가치들도 낡거나 뒤처진 것으로 만드는 것이 상례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도 마찬가지다.

가령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범박하게 말해 '백성(국민)이 주인인 국가 체제' 정도가 그 정의일 텐데. 지금의 국가 체제하에서 백성의 주인됨은 선거를 통한 주권 행사가 보장한다. 이 말은 18세 이상, '시민권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들'이 이 체제의 주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유명해진 작가 한강의 물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그리고 현재가 과거를 구원할 수 있는가' 같은 문장을 염두에 둘 때, 살아 있는 자들만의 민주주의는 어딘가 제한적이다.

'5·18 기념 투쟁'의 역사를 혹자는 '애도의 정치'라고도 부르거니와 애도 과정에서 과거에 죽은 자들은 살아 있는 자들보다 더 강력한 주권을 행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만 그럴까?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를 따라 한국의 정치철학자 진태원이 최근 '미래의 유령들'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미래에 죽었을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지 않지만 미래에 살아있게 될 인간들에게도 정당한 주권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 그들에게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운명을 부여하지 않도록, 그들 역시 미리 의석에 앉혀 발언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기후재난이 이미 눈앞에 닥쳐버린 이 시점에, '민주주의'란 말에 깊이 뿌리박힌 인간중심주의도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할 듯하다. 평등 원칙에 관한 한 가장 급진적이었던 사상가 마르크스마저 '노동력'에 말과 소의 땀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제 사라져버린 현실사회주의 국가들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구라는 행성에 거주하는 '비인간' 존재자들은 항상 인간에 대해 재화이자 소비재였을 뿐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평등의 대상으로 등극한 바 없다. 그나마 최근 사물들의 민주주의, 비인간 권리 담론의 급증은 반길 만 한 일이다.

이제 굳이 '인권'이란 가치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덧붙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최근 세계적 차원에서 급증하는 난민 문제, 국내의 경우 외국인 이주자들의 처우 문제 등이 기존의 인권 담론으로 포괄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만은 강조해 둔다. 그러니까 인권이란 가치 또한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평화'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로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 갈등과 분쟁이 없는 상태'만을 지칭하게 될 경우, 이 용어는 인간이 지구라는 유한한 행성에 거주하는 다른 비인간 존재자들과 항상적인 분쟁 관계를 계속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치할 수밖에 없다.

말이 좀 거창해졌다. 게다가 이 글을 쓰는 나로서도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다시 5·18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역량이 아직 없다. 다만 5·18이 끝없이 재해석되고 다시 쓰여야 하는 '무한텍스트'라면 저와 같은 질문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수많은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굳어지고 말 것이라는 경고 정도는 해두어야 하겠다.

수필의 향기

뱀딸기, 이름 붙인다는 것의 슬픔

김향남
수필가

산책길 옆 풀밭에 붉은 점들이 반짝인다. 한 알, 두 알. 마치 그림책 속 딸기처럼 동글고 탐스럽다. 그러나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누군가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싶다.

"그건 뱀딸기야. 독이 있을지도 몰라."

경고 같은 한마디에 금세 불안과 경계심이 스며든다. '뱀'이라는 말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딸기가 아니다. 딸기 같은데 딸기가 아니며 먹을 수 있을 듯하면서도 먹어선 안 되는 것. 보기에는 예쁘지만 어딘지 위험해 보이는 것. 뱀딸기는 처음부터 어떤 낙인이 찍힌 채 우리의 경계선 밖에 놓여 있다.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판단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이름 붙여 구분하고 해석하며 기억한다. 이름은 언어의 외피이자 인식의 지도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사회적 맥락과 감정을 덧씌우는 일이다. 이름은 그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회피하며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뱀딸기'라는 이름에는 단순한 명명이 아닌 복잡한 문화적 정서가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다.

그런데 왜 하필 뱀일까. 왜 뱀이라는 음울한 접두어를 붙여 놓았을까. 그것은 풀밭에 숨어 있는 뱀을 경계하라는 조상들의 지혜가 이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고의 의미로 전해진 것일 수도 있고 뱀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불안과 혐오, 미지에 대한 감정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기호였기 때문일 것이다.

뱀은 오랜 세월 인류 문명에서 가장 이중적인 존재였다. 사랑과 증오, 경외와 혐오, 지혜와 기만을 동시에 의미했다. 인간은 자기 안의 모순된 감정을 외부 대상에 투사해 왔거니와 뱀은 그러한 투사의 대표적인 매개였다. 꿈틀꿈틀 기어 다니는 낮은 몸, 미끄럽고 축축한 감촉, 날름거리는 혀의 이물감. 뱀은 그 생김새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감각을 자극했고 무의식 깊은 곳의 본능을 일깨우며 감정의 파문을 일으켰다.

신화는 이 감정을 극대화해 보여준다. 에덴동산에서 뱀은 인간을 유혹한 타락의 주체로 등장한다.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인간은 지식의 눈을 떴지만 그와 동시에 낙원을 잃었다. 뱀은 문명의 시작과 함께 죄의 기원으로 표상되었다. 그 후로 수천 년, 뱀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은 그 선을 넘는 두려움을 '혐오'라는 방식으로 표현해왔다.

그렇다고 뱀이 언제나 부정의 아이콘인 것은 아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뱀을 시간의 순환, 탄생과 죽음의 무한 반복으로 여겼다. 꼬리를 입에 문 채 원을 이루고 있는 '우로보로스'는 끝없는 생성과 재생의 상징이었다. 인도에서는 '쿤달리니'라 불리는 잠재된 에너지가 뱀처럼 척추에 말려 잠들어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깨어날 때 인간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고 보았다. 의술의 상징이 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도 뱀이 감겨 있다. 뱀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이중언어이며 인간 심리의 역설을 비추는 상징적 거울이다.

뱀딸기는 그 거울의 일면이다. 딸기와 닮았으나 딸기가 아닌 것. 먹음직스럽긴 하지만 왠지 꺼려지는 것. 그것은 뱀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채 '이름'이라는 낙인 아래 타자화되었다. 이름은 인식을 지배한다. 이름은 사랑을 허락하고 동시에 금기를 선언한다. 이름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를 미리 정해버린다. 뱀딸기는 처음부터 '멀리해야 할 것'으로 호출된 서글픈 이름이다.

정작 뱀딸기에는 독성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아토피와 피부염증, 면역력과 항암 등에 주효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먹을 수는 있지만 밍밍하고 떫어 외면당할 뿐이다. 게다가 우리는 그 붉은 열매를 보며 여전히 '뱀'의 그림자를 먼저 떠올린다. 이름에 속고 편견에 휘둘리고 있을 따름이다.

풀밭의 작은 열매들이 나를 본다. 초록 속 새뜻하게 붉은빛이 묘하게 도발적이다. 끌림과 망설임, 매혹과 불안감이 한순간에 교차한다. 누명을 쓴 뱀딸기가 뱀처럼 구부러진 산책로 풀밭에서 서늘하게 나를 응시한다. 그 시선은 어쩌면 내 안의 낯선 감정, 이질적인 충동,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아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이름 붙여 멀리했던 것들, 애써 외면했던 모순된 본성을 뱀딸기는 붉은 눈으로 묻고 있는 듯하다.

조심조심 길을 따라 걷는다. 모처럼 스르륵! 뱀 한 마리 마주쳐 깜짝 놀랐으면 좋겠다.

기 고

광주에서 민주주의 수업을 마치고

이채원
제천간디학교 4학년

제천간디학교는 모든 학년이 배움의 공간을 학교 밖 세상으로 넓히는 '움직이는 학교'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진행한다. 4학년 움직이는 학교의 목적은 심도 깊은 사회 참여를 통한 가치 세우기인데 올해 주제는 '선거와 민주주의'였다. 4학년 움직이는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3개의 큰 주제-계엄과 민주주의, 다양한 민주주의 방식, 민주주의의 실천-를 정하고 2명씩 조를 나누어 소주제를 정했다. 그런 다음 조별로 맡은 소주제에 대한 사전학습을 하면서 직접 만나고 싶은 단체나 전문가를 섭외하고 방문 장소와 활동, 동선 등을 계획했다. 1학기 내내 진행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지난 6월 우리는 서울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16박 17일의 무빙을 시작했다.

우리가 계획한 많은 활동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5·18 관련 활동이었다. 특히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움직이는 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독서토론을 했다. 그런 다음 찾은 5·18 민주묘역에서 소설의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된 분의 묘비를 직접 보고 묘비를 닦던 시간은 그 어떤 때보다 5·18이 실감 나게 와닿는 순간이었다.

민주묘역을 쭉 걸으며 피해자 분들의 사진을 보는데 내 또래나 나보다 어린 분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 날 얼마나 무서웠을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얼마나 깊었을지 감히 짐작이 되지 않았다. 움직이는 학교가 끝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다. 책이나 영화, 박물관이나 역사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무게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다.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은 '계엄과 민주주의' 대주제 아래 소주제인 '계엄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였다. 주제를 더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만나볼 수 있는 단체를 알아보던 중 광주일보가 눈에 띄었다. 광주일보가 12·3 계엄 당시 빠르게 호외를 발행했고 그 이후에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련 기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을 했다. 꽤 긴 시간 동안 움직이는 학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직접 광주일보를 방문할 때 기대도 크고 많이 떨렸다.

광주일보 기자와의 간담회는 나와 친구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기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무척 생생했다. 우리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민주주의, 기자·언론의 역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 지 등을 듣고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간담회에서 기자가 계속 강조한 것은 기사는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신속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알게 된 정보가 확실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기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자의 말과 태도에서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느껴져서 이야기가 더 와 닿았다. 평소 언론인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은 궁금한 점이 많아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

제천간디학교를 다니면서 보낸 4번의 움직이는 학교 중 이번만큼 스스로 느끼기에 성장했다는 마음이 든 적이 없었다. 사실 나는 이번 움직이는 학교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저 내 삶을 살기 바빴고 그런 것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과 광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장소를 가보면서 지금까지처럼 무관심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빙 중 만났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반복해 들으면서 나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실천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다. 5·18 민주묘역 참배를 준비하며 종이꽃을 접던 순간, 친구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순간의 느낌과 마음을 잘 기억해두어야겠다.

社 說

오락가락 조례 논란, 문제의식 없는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내란 옹호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에 뒤늦게 자동 폐기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 '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가 없던 일로 결정했다. 본회의 상정 직전 자동 폐기로 돌아선 것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연석회의를 갖고 비판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의원의 대표 발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8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려 조례안을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조례안 발의 의원 9명에 상임위원 5명까지 중복된 의원을 제외하면 과반에 달하는 12명이 해당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인데 '민주주의 상징도시' 광주시 의원들의 한심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주최한 행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치켜세워 논란을 일으킨 단체다.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뒤 노골적으로 극우 보수 지원 움직임을 보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관제집회 동원 의혹에도 휩싸인바 있다. 이런 단체의 성격을 뻔히 알면서도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유로 민주도시 광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광주시민들은 5·18 정신을 외치고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광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뒤늦게 '안일했다'거나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사과를 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은 물론 광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사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소명의식을 갖는 광주시의원들의 모습을 보고싶다.

음서제로 전락한 로스쿨 대안 모색해봐야

유일한 법조인 양성 루트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이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 시민이 "로스쿨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하면서 로스쿨 대안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질문에 답하면서 "행사 전 점심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며 "로스쿨이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소개했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은 2017년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면서 유일한 법조인 양성 루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위 금수저 출신들의 등용문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 성적과 법학적성검사 등 입학전형이 명문대 출신 어린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등록금도 비싸 가난한 사람들에겐 '넘사벽'처럼 허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한 126명 중 지역출신은 10% 가량인 1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로스쿨이 이미 정착해 폐지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둬서도 안된다. 개선책을 찾아 로스쿨을 보완하든지 개천에서 용 나듯 가난한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마침 대한변호사협회도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로스쿨 제도 보완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 정부 로드맵을 마련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러가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無 等 鼓

헨드릭 하멜

헨드릭 하멜(1630~1692·Hendrick Hamel)은 우리나라(조선)에서 13년 20일 동안의 삶을 기록한 '하멜 표류기'의 저자이다. 그의 공적은 17세기 조선을 세계에 최초로 소개했다는 데 있다.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기술 내용이 부정확한데다 조선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은 물건을 훔치고, 지짓말하고, 속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웅적인 행위라고 여긴다"라는 문장이다. 학계에서는 하멜의 책은 200년 넘게 조선에 대한 유일한 기록으로 읽히면서 유럽에 한국을 널리 알렸지만 조선인은 야만적이고 거칠다는 이미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내린다.

하멜은 전남 강진에서 1656년 3월부터 1663년 3월까지 7년 동안 생활했다. 하멜 일행은 전라 병영(강진 병영면)에 수용돼 조정으로부터 쌀을 배급받아 연명했다고 썼다. 병마절도사는 이들에게 한 달에 두 번씩 군청 앞 광장과 장터에서 풀을 뽑게하고 청소도 시켰다. 인품 좋은 병마절도사는 이들을 노역에 동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를 주기도 했다. 이들은 품을 팔아 옷가지와 식량을 보충하거나 흉년이나 기근이 들면 구걸로 목숨을 이었다. 이들은 강진 병영마을에 '한골목'이라는 담장(등록문화재 제64호)을 남겼다. 네덜란드식 담장으로 알려져 있다. 강진군은 하멜과의 인연을 관광자원으로 끌어올렸다. '하멜 기념관'을 개관하고 그의 고향 호르큼시(市)와 교류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학계에 따르면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유럽한국학회(AKSE) 총회에서 기존 헨드릭 하멜상의 명칭을 AKSE상으로 바꾸는 안건이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고 한다. 하멜상이 유럽의 오리엔탈리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학계 일각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하멜의 기술 내용이 동양을 비하하고 왜곡하는 서양시각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학계의 인식과 별도로 강진군과 호르큼시가 새롭게 일궈가고 있는 문화 교류와 하멜 사업은 변함 없이 지속됐으면 한다.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